『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7월 29일 (다섯째 주일)

성경본문 : 행20장 13-16절 설교제목 : “걸어서 가고자 하여”

드로아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귀로만 듣다가 유두고를 통해서 생생히 눈으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바울은 날이 새기까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드로아를 떠나서 앗소로 가는데, 바울의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앗소로 가고, 바울은 혼자 걸어서 앗소를 가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바울 자신의 의지적인 결정이었습니다.(13절)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는 약 40km정도 거리입니다. 인생 노년에 접어든 바울에게는 걸어서 가기에는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면 편히 쉽게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굳이 자신의 동료들과 떨어져서, 앗소까지 홀로 걸어가고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밀레도에서 남긴 유언과 같은 말 속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와 헬라에 이르러 사역을 하고 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하였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점은 수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밀레도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곧장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매여’**로 번역된 헬라어 **‘데데메노스’**는 **‘묶다’**, **‘속박하다’**는 뜻으로 육체적인 매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고 굳게 결심하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2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결박과 환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까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24절) 정리해 보면, 성령의 결박과 환난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수리아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선포 사이에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홀로 걸어갔던 바울의 여정이 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바울이 일행과 함께 편안히 배편으로 앗소로 가지 않고, 걸어서 앗소까기 걸어가고자 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일행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서, 침묵 속에서 성령님의 뜻에 자신을 붙들어 매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메조리 톰슨이란 분은 기독교 영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영성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그에게 응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능력을 의미한다. 결국 영성은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영성은 우리에게 신앙을 선택하게 하고, 가치 있는 일에 전념하게 하며,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성령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스스로 앗소까지 걸어가고자 한 모습 속에서 톰슨이 정의한 기독교 영성의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홀로 걸어가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 들이고, 성령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며 성령께 응답한 것입니다. 더불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홀로 걸어가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고, 주께서 주신 가치있는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을 선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성있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갈5:16)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할 때 진정으로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의 영안에 있는 삶과 하나님의 영과의 살아 있는 교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격리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다른 일행과 떨어져서, 홀로 걸어가는 자발적인 자기 격리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광야를 찾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스스로 자신을 주변으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막1:35)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한적한 곳인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것은 소란스런 세상에서 자신을 격리시켜, 성령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을 십자가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격리시켜 한적한 곳으로 떠나 침묵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격리와 고독과 침묵이 사막의 영성훈련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막의 영성훈련은 보통 세 가지인데, 첫째가 **떠나라**, 둘째가 **침묵하라**, 셋째가 **기도하라**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홀로 걸어간 시간은 사막의 영성훈련과 같이 떠나서 침묵하고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성훈련은 성경읽기로부터, 성경묵상, 예배, 기도, 금식, 자연 묵상, 성찰기도, 영적 일기, 환대, 일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영적훈련의 핵심은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영성훈련을 지속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형편에 맞게 의도적이고 강제적인 시간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이든, 아침이든, 밤이든 자신에 맞게 시간을 정해서, 반드시 의도적인 고립과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의 귀에 들여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괴로운 세상으로 나가 기쁨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1) 바울이 배를 타고, 앗소까지 편히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신의 동료들과 떨어져서 앗소까지 걸어가고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사막의 영성훈련에서 핵심적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2)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의도적인 자기격리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 영성훈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영성훈련을 지속하고 있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